



세상과 이어지는 통로를 지키다

듣고, 말하고, 숨 쉬는 기능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다.
이비인후과는 귀·코·목의 건강을 통해 환자가 세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돕는다.
감각이 닫히면 관계도 멀어지고 삶을 향한 깨어있음 또한 줄어든다.

03

Intro

모두의 할머니가
되어줄게

04

Theme

세상과 이어지는
통로를 지키다

08

Good Doctor

생명을 살리고
삶의 기능을 지키다

12

Health 1

반복되는 어지럼,
메니에르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14

Health 2

목 통증의 원인
목감기와 편도염,
어떻게 구분할까?

16

Health 3

휘어진 코의 축을
바로 세우다!

18

Health 4

고민되는 입냄새,
해결할 수 있을까요?

20

Health 5

잃어버린 목소리,
다시 찾은 삶의 울림

22

Korean Medicine

알레르기 비염,
치료만큼 중요한
음식과 생활관리

24

Focus 1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

28

Focus 2

예술로 치유를 더하다,
갤러리 숨

30

Team

환자의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

32

Essay

새봄을 맞이하며

34

Temple

흙과 바람, 바다를 펼쳐두고
사람을 기다리는 절

38

Law

승소 판결문,
휴지조각이 되지 않으려면?

40

Book

육인 감정, 꼬인 인연,
멈춘 마음을 푸는
어른의 지혜

42

News

동국대학교의료원
뉴스

45

Donation

보시공덕

모두의 할머니가 되어줄게

88세 김영옥 배우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반응이 뜨거운 건 단순히 ‘고령 유튜버’라는 화제성 때문만은 아니지요. 영상 속 그는 일상을 보여주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에 말을 겁니다. 젊은 가수의 콘서트장에 가고 낮선 유행 음식을 즐기며 가수 임영웅에 대한 설레는 팬심을 숨기지 않지요. 유튜브 댓글에 ‘독수리 타밥’으로 정성껏 답글을 다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무엇보다 제작진을 손주 대하듯 살뜰히 챙기는 따뜻함은 사람들을 이 채널에 오래 머물게 하는 힘이지요.

요즘 유튜브는 가히 ‘할매·할배 전성시대’입니다. 손녀와 집밥을 만드는 97세 할아버지, 출근을 고민하는 60·70대 아버지들까지. 그들의 콘텐츠에는 화려한 기교가 없습니다. 그저 살아온 시간만큼 깊어진 일상을 담담히 보여줄 뿐이지요. 가르치려 들기보다는 새로운 유행에 슬쩍 발을 들여놓는 유연함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젊은 세대는 그 속에서 잊고 지낸 추억을 발견합니다. 이야기 하나로 세대가 이어지고 댓글을 주고 받는 동안 나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쉽게 좁혀 집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세상과의 거리는 멀어지게 마련이지요.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위축되곤 하나까요. ‘뒤쳐진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줄까’ 싶은 마음에 더 움츠러들고 자의든 타의든 고립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유튜브라는 낯선 무대에 섰듯 도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지요.

하지만 세상과 소통한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는 것, 다른 세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나도 여기 있다’고 조용히 손을 흔드는 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요. 세상 밖으로 나온 할머니·할아버지 유튜버들처럼요. 그러니 담담하게, 자신만의 속도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깊고 풍성한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뜻일 테니까요.

세상과 이어지는 통로를 지키다

소리와 숨, 삼킴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다.
잘 들리고 편히 숨 쉬고 무사히 넘기는 일은
문제가 생긴 뒤에서야 의식하게 된다.
귀·코·목은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하루의 균형을 조율하며
세상과 우리를 잇는 통로가 된다.
익숙함 속에 묻혀 있던 감각의 역할을
다시 바라본다.

들린다는 것과 듣는다는 것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소리 속에 살고 있다.
알람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도로 위의 소음과
사람들의 말소리, 이어폰 속 음악이 쉴 없이
이어진다. 이렇게 끊임없이 소리는 ‘들리지만’,
과연 우리는 제대로 ‘듣고’ 있을까?
누군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지는 않은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목소리를 무심히
흘려보낸 적은 없는지 문득 돌아보게 된다.

귀는 소리를 감지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우리의
몸과 일상에 균형을 부여하는 감각이기도 하다.
우리가 똑바로 서 있고 고개를 돌려 소리의 방향을
가늠하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모두
귀 덕분이다. 세상의 소리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관계 속에서 균형을 잡는다.
웃음소리와 한숨, 말끝의 미묘한 떨림까지 감지하는
능력은 단순한 청각을 넘어선 ‘소통의 감각’이다.
우리는 귀로 말을 듣는 동시에,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 느낀다. 보이지 않지만 귀는 늘
우리의 일상을 조용히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귀에 문제가 생기면 몸은 신호를 보낸다.
귀가 먹먹해지거나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아무 소리도 없는데 소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명이나 난청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하고 서서히 익숙해지며 진행되기도 한다.
잘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말수는 적어지며 사람과 만나는 일이 피곤해진다.
귀의 문제는 어느새 마음의 거리로 이어진다.

귀의 건강은 곧 관계의 건강과 맞닿아 있다.
때로는 상대의 말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세상과 부드럽게 이어진다.
지금, 당신은 잘 듣고 있는가. 소리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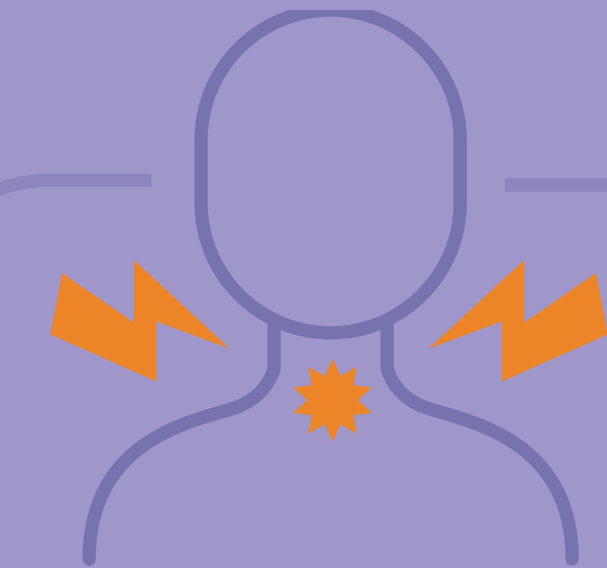
미리 보내는 신호

봄이 오기 전, 늘 코로 계절을 먼저 느낀다.
달력이 아니라 아침의 재채기 횟수로 봄을 짐작한다.
눈을 뜨자마자 연달아 터지는 재채기,
이유 없이 흐르는 콧물, 아직 꽃이 피지도 않았는데
코는 이미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린 듯하다.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만 그런 날은
어김없이 하루가 길어진다.

회의 중에는 코를 훌쩍이는 게 신경 쓰이고
마스크 안에서는 숨이 더 답답해진다.
밤이 되면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쉬고 자다 깨기를
반복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은
흐릿하다. 단순한 증상 같아 보이지만 하루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코는 작은 불편으로도 생활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는다.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코 질환은 갑자기 삶을 멈추게
하지는 않는다. 대신 서서히 스며들어 일상을 갇아먹는다.
냄새가 둔해지고 숨이 얇아지고 피로가 쉽게 쌓인다.
감기처럼 며칠 앓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계절마다 반복되며 익숙해진다.
불편함에 적응하는 순간 코의 신호는 무시되기 쉽다.

하지만 코는 늘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먼지를 걸러내고
공기를 데우고 위험한 냄새를 구분하며 몸을 지킨다.
숨이 편안해졌을 때 비로소 하루가 부드럽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세상과 이어지는 통로는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삼켰을까?

컵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마시다가 잠깐 멈춘 적이 있다.
넘어갈 줄 알았던 물이 목에서 갑자기 방향을 잃는다.
숨을 들이쉴지, 삼킬지, 목이 잠시 갈피를 잡지 못한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기침이 나오고 눈이 찡그려지고
괜히 주변을 살핀다. 아무 일도 아닌 척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목이 나보다 먼저 상황을 판단한다.
목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 알리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막아낸다.

생각해 보면 목은 늘 선택의 현장이다.
숨이 지나갈지 음식이 넘어갈지 소리가 나올지 말지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였다가 흩어진다.
이 복잡한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만큼 이곳은 우리의 기억에서
늘 비켜 서 있다. 아무 일 없던 수천 번의 삼킴은
흔적 없이 지나간다.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삼켰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무심코 삼킨 침, 가족들과 저녁 식사,
말하려다 멈추며 다시 삼킨 문장의 끝까지,
그 모든 것이 같은 길을 지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냈다.
문제없이 지나간 하루만큼 목은 무사히 넘겨진
시간 속에 묻힌다.

아무 일 없던 하루였다면 그건 어쩌면 목이
가장 바빴던 하루였을지도 모른다.
걸리지 않게, 새지 않게, 엉키지 않게 수없이 조율하며
조용히 제 역할을 다해낸 하루였을 것이다. 🌸





생명을 살리고, 삶의 기능을 지키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임윤성 교수

기능과 생명을 함께 지키는 치료

“갑상선암이나 두경부암은 일반외과에서도 수술하지만, 성대나 성대신경, 식도처럼 기능과 직결된 부위를 침범한 경우에는 이비인후과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목소리가 변하거나, 숨 쉬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임 교수는 수술의 범위보다 그 이후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코 비중격 수술처럼 다른 진료과에서도 시행하는 수술이라 하더라도, 이비인후과는 ‘기능 회복’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단순히 병변을 제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다시 편안하게 숨 쉬고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그의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은 다양하다.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요”,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침샘이 부은 것 같아요”, “갑상선에 혹이 생겼어요.” 이처럼 일상 속 작은 불편에서 시작해, 암 진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비인후과는 귀·코·목을 다루는 조금은 심각하지 않은 질환을 다루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임윤성 교수가 마주하는 환자들은 그보다 훨씬 깊고 무거운 질환도 많다. 두경부암, 갑상선암, 침샘암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은 물론, 말하고 숨 쉬고 삼키는 ‘일상의 기능’을 지켜내는 일이 그의 진료실에서 매일 이어진다.

목소리를 지켜주는 음성치료센터

최근에는 음성변화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고령화와 함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소리’ 역시 중요한 건강 지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남성은 성대가 얇아져 소리가 가늘어지고, 여성은 성대가 두꺼워지면서 목소리가 굵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내 목소리가 맞나’ 하고 걱정하며 오시죠. 저는 당장 수술을 권하기보다는, 제2의 변성기를 겪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임 교수는 성대를 현악기에 비유해 설명한다.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다가 첼로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악기가 바뀌면 연주법도 달라져야 하잖아요. 바뀐 성대에 맞는 발성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한 발성은 성대결절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말을 너무 하지 않아도 성대는 약해진다. 은퇴 이후 말할 일이 줄어든 고령 남성에게 음성 문제가 많은 이유다. 그래서 그는 ‘적절하게 목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법



이라고 강조한다.

동국대학교병원은 2020년, 임 교수의 주도로 ‘음성 치료센터’를 열었다. 성대진동검사 장비를 통해 발성 시 성대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전문 음성치료사와 함께 재활치료를 진행한다. 목사, 스님, 교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생활체육 강사, 텔레마케터처럼 ‘전문적 음성 사용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공간이다.

환자의 불편함에 귀 기울이다

편도 질환을 대하는 인식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반복되는 염증 때문에 수술을 결정했다면, 요즘은 편도결석으로 인한 이물감이나 구취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 이후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해졌다. 특히 중·고등학생 환자들이 늘었다.

“그 나이대는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잖아요. 입냄새나 이물감에 민감해서 직접 수술을 원하기도 합니다. 수술 후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흔히 느끼는 증상인 ‘목에 뭔가 낀 것 같은 느낌’, 즉 인두 이물감의 원인을 임 교수는 몇 가지 원인으로 나눠 설명한다. 역류성 후두질환, 후비루, 중장년 여성의 호르몬

변화, 그리고 심리적 요인까지. 그는 “증상이 느껴진다는 사실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원인을 찾고, 설명하고,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료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장년 여성들의 인두 이물감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목에 둥근 구슬이 막혀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다. 혹은 없는데 느낌만 있는 이상한 현상인데 후두점막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비인후과적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을 때 호르몬 치료로 쉽게 개선되는 사례가 많다.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환자 우선

두경부암 수술은 때로 하루 종일 이어지는 긴 여정이 된다. 혀뿌리암, 침샘암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위는 로봇수술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임 교수는 “흉터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직접 절개해 꼼꼼히 봉합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한다.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환자에게 무엇이 가장 이로운가’다.

그의 기억에 오래 남은 환자들이 있다. 단순한 혹이라 생각하고 10년 넘게 방치한 침샘암이 안면신경까지 침범

했던 60대 여성 환자. 아침 일찍 시작한 수술을 여러 과의 교수들이 함께 밤 11시까지 이어간 끝에 수술을 잘 마치고, 방사선 치료까지 마친 후 지금까지 7년 넘게 재발 없이 지내고 있다. 완치율 50% 미만이라는 두경부암 3·4기에서 얻은 결과라 더욱 뜻깊었다.

혀의 절반을 절제해야 했던 구강암 4기 환자, 침샘암으로 진단된 중학생 환자, 성대신경을 감싸고 있던 갑상선암을 현미경으로 하나하나 떼어냈던 순간들….

임 교수의 진료는 늘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진행된다.

숨길, 생사의 갈림길에서 지켜낸 생명

겨울이면 심경부 감염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늘어난다. 감기나 편도염, 치아 염증이 번져 호흡곤란으로 이어지는 위급한 상황들. 그는 “농양은 항생제로 낫지 않는다”며 반드시 제거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 숨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일이다.

임 교수는 레지턴트 1년 차 시절 경험했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의 손길이 아직도 생생하다. “재발성연골염으로 숨길이 좁아져 종종 내원하던 학생인데, 호흡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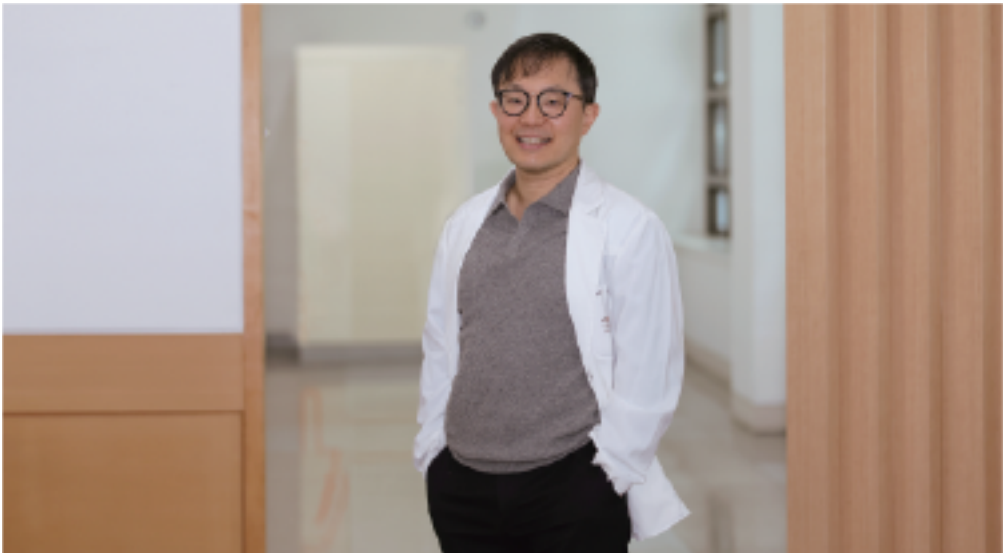
으로 매우 위급한 순간에 CPR을 진행하면서 기도확보 수술을 했어요. 뇌손상이 왔을까봐 걱정했는데 환자가 마취에서 깨자마자 제 손을 잡아줬어요. 아, 무사했구나! 하면서 안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또렷이 남아있어요.” 위기의 순간마다 환자와 나눈 교감이 그를 변함없는 의사로 이끌어주었다.

아픈 사람 고쳐주고 싶다는
순수한 아이의 마음

어렸을 때부터 아픈 사람 고쳐주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는 임윤성 교수. 교장선생님이셨던 할아버지는 “은성이는 침착하니까 의사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지금도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진료실에 앉는다.

“베스트 닥터는 아니어도,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의사는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진료합니다.”

수련의 시절 은사의 한마디, “이 환자가 네 이모라면 어떻겠니?” 그 질문을 매 순간 마음에 새긴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의사로서 진료실에 선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임 윤 성 교수

전문진료분야
갑상선 종양, 두경부 종양(구강, 인두, 후두, 침샘, 경부림프절), 로봇수술, 성대마비 및 음성질환



반복되는 어지럼, 메니에르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석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어지럼과 함께 귀가 먹먹해지거나 이명이 동반되고 청력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이비인후과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니에르병은 어지럼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청각과 균형 기능에 점진적인 변화를 남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초기 증상이 가볍다고 방치할 경우 반복되는 발작을 통해 기능 저하가 누적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메니에르병의 원인과 증상 특징

메니에르병은 내이 안에 존재하는 내림프액(endolymph)의 양과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내림프 수종(endolymphatic hydrops)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된 질환입니다. 내이는 청각과 균형을 동시에 담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압력 변화는 어지럼, 난청, 이명, 귀 먹먹함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메니에르병에서 나타나는 어지럼은 수십 분에서 수 시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지럼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이 질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반복되는 발작과 기능 저하의 누적

메니에르병의 경과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증상이 반복되면서 기능적인 저하가 점차 누적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기에는 청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변동성 난청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이 반복되면 점차 회복되지 않는 영구적인 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정 기능 역시 반복적인 발작을 거치면서 서서히 저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지럼 발작이 줄어든 이후에도 만성적인 불안정감이나 지속적인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단계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연 경과로 인해 메니에르병은 단기간의 증상 완화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치료의 목표와 약물 치료 전략

따라서 메니에르병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현재의 어지럼을 가라앉히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치료의 핵심은 어지럼 발작의 빈도를 줄이고, 청력의 급격한 변동을 최소화하여 장기적인 청각 및 전정 기능 저하를 최대한 늦추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증상의 양상과 경과에 따라 약물

치료를 조절하고,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병행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메니에르병이 내림프 수종과 관련된 질환이라는 점에서 약물 치료의 중요한 축은 내림프액의 과도한 축적을 완화하고 내이의 압력 변화를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이노제가 사용될 수 있으며, 증상 조절과 재발 예방을 위해 내이의 순환과 전정 기능 조절에 도움을 주는 약물들이 보조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청력 변화에 대한 주의와 생활 관리의 중요성

특히 메니에르병 환자에게서 갑작스러운 청력 저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급성 청력 저하는 돌발성 난청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청력 회복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청력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느껴질 때에는 증상을 지켜보기보다는 신속하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메니에르병은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분 섭취가 많은 식습관, 불규칙한 수면, 과도한 피로와 스트레스는 내이의 압력 조절에 부담을 주어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메니에르병은 막연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되는 질환입니다. 전문적인 진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불안과 일상생활의 불편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비인후과

박주현 교수

전문진료분야
중이염, 난청, 이명,
어지러움증, 안면신경마비,
인공와우



목 통증의 원인 목감기와 편도염, 어떻게 구분할까?

외부의 공기와 음식이 오가는 목은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쁘게, 그리고 가장 먼저 외부와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만큼 감염에 취약하지만 동시에 침과 점막, 편도라는 든든한 방어막으로 스스로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흔히 겪는 목감기와 편도염은 이 방어선이 약해졌을 때 찾아오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두 질환은 초기 증상이 비슷해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원인과 경과, 치료 시점에 따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증상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몸의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라 할 수 있습니다.



외부와 맞닿은 통로, 목의 방어선

목구멍은 외부의 공기, 음식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이며 외부 환경과 접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은 감염에 취약한 환경입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 감염에 대항해 싸우는 과정은 마치 성벽을 방어하는 전쟁과 같습니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감염원을 막는 성벽도 물론 우리 몸에 있습니다. 입안의 침에 포함된 면역 성분, 점막 면역 체계, 편도와 같은 림프 조직이 그런 것들입니다. 입을 크게 벌렸을 때 양옆에 있는 조직은 우리가 흔히 편도라고 칭하는 구개 편도이며, 그 외 설편도, 인두 편도가 있습니다. 외부 공격을 성벽이 감당하지 못할 때 무너지듯이, 이러한 우리 목의 방어막이 약해져 있을 때 목감기나 편도염 같은 목 질환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목감기

목감기는 주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상기도 감염의 한 형태입니다. 감기 초기에 목이 건조하거나 따끔거리고, 쉼 목소리, 가벼운 기침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열은 심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만으로도 3~5일 내에 호전됩니다. 이때 무리하게 말을 하거나 과로하게 되면 회복이 더뎠을 수 있습니다.

통증과 열이 심해지는 편도염

편도염은 목 안쪽에 위치한 편도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바이러스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특히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고열, 심한 목 통증,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 그리고 편도에 하얀 분비물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단순 감기로 오인하고 방치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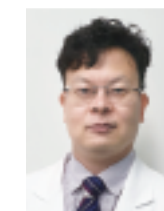
목감기와 편도염, 어떻게 구분할까?

두 질환이 무 자르듯이 정확히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편도는 목의 일부이기 때문에 편도에 특히 심한 염증이 동반되었을 때 편도염이라고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두 질환 모두 초기에는 증상이 비슷하지만 열의 정도와 통증의 강도, 전신 증상 여부가 구분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목감기는 비교적 가볍게 지나가는 반면, 편도염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심할 경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줍니다. 또한 제때 치료하지 않은 편도염은 농양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세균성 편도염(특히 A군 연쇄상구균 감염)은 콩팥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목 통증이 며칠 이상 지속되거나 열이 높고 삼키기 힘들 정도로 아프다면 단순한 목감기로 넘기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튼튼한 성벽을 쌓는 목 건강 관리법

목감기와 편도염에 잘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와 목의 점막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아주는 하나의 '성벽'과 같습니다. 이 점막이 건조해지면 성벽에 금이 가듯 방어력이 약해지고 감염에 더 취약해집니다. 손 씻기와 구강 청결을 생활화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수면으로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를 피하고 목에 무리가 가는 습관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목의 방어력은 한층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관리가 목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성벽이 됩니다.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이비인후과

김창희 교수

편도, 아데노이드질환, 두경부 종물,
감상선질환, 경부 감염성질환, 침샘질환,
성대질환, 하비갑개, 비종격질환, 부비동질환,
후각장애, 난청, 어지러움, 중이염



휘어진 코의 축을 바로 세우다! 건강한 숨과 아름다움을 되찾는 코 성형

거울을 볼 때마다 콧대가 한쪽으로 휘어져 있어 신경 쓰이시나요?

혹은 과거에 코를 다친 이후로 코막힘이 심해지지 않으셨나요?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예전에 운동하다가 코를 부딪쳤어요” 혹은 “어릴 때 넘어진 적이 있어요”라며 외상(Trauma) 후 변형된 코 모양과 호흡의 불편함을 호소하십니다. 단순히 콧대만 높이는 미용 수술이 아닌, 휘어진 코의 뼈와 연골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아 숨길을 트고 잃어버린 얼굴의 균형까지 회복하는 치료적 접근, 이것이 바로 ‘흰 코 성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휘어진 코, 겉과 속은 하나로 연결

코가 겉으로 휘어져 보인다면(사비, 흰 코) 코의 내부도 휘어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코가 휘어지면 코안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인 비중격도 함께 틀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휘어진 비중격이 콧구멍 한쪽을 좁게 만들어 만성적인 코막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흰 코 교정은 미용적인 욕구 이전에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숨이 편하지 않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많은 일상에 불편함을 줍니다. 그래서 흰 코 교정은 보이는 코를 고치는 수술이 아니라, 제대로 숨 쉬는 길을 되찾는 치료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보수하듯, 코의 ‘축’을 바로 세워야

흰 코 교정의 핵심은 겉으로 드러난 모양만을 바로잡는 데 있지 않습니다. 건축물에 균열이 생겼을 때 외벽만 덧칠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듯, 코 역시 중심을 이루는 ‘축’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습니다. 코의 기둥 역할을 하는 비중격과 그 위를 덮고 있는 코뼈와 연골 구조가 함께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흰 코 수술은 단순한 미용 수술이 아니라 구조를 다시 세우는 정밀한 ‘재건’의 과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 코뼈가 휘어 있는 경우 휘어진 뼈를 절골하여 다시 맞추는 ‘절골술’을 통해 코의 전체적인 축을 얼굴 중앙으로 반듯하게 이동시킵니다. 이와 동시에 콧속의 휘어진 비중격 연골을 바르게 펴주는 ‘비중격 교정술’을 시행하여 숨이 지나가는 통로를 확보합니다. 기초 공사(비중격 교정)와 기둥 공사(축 교정)가 튼튼하게 이루어져야 코가 다시 휘어지는 것을 막고, 시원한 호흡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능 회복과 미적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많은 환자분이 “코 성형을 하면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하는 흰 코 교정술은 인공 보형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자가 조직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술 과정에서 비중격을 펴주면서 얻게 되는 ‘자가 비중격 연골’은 코끝을 오뎅하게 하거나 코의 라인을 다듬는 데 가장 안전하고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즉, 코의 축을 바로 잡고 비중격을 교정하여 숨 쉬는 기능을 회복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콧대가 반듯해지고 코끝이 정돈되는 심미적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능적 코 성형이 추구하는 지향점입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이 성공의 첫걸음

흰 코 교정은 코 성형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속합니다. 겉모양의 개선뿐만 아니라 코 내부의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코막힘과 함께 휘어진 코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코의 내부와 외부를 통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코는 얼굴의 중심이자 생명의 통로입니다. 휘어진 축을 바로 세우는 일은 단순히 예뻐지는 것을 넘어 편안한 숨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비인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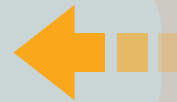
김진엽 교수

알레르기 비염,
코성형(미용적 코성형, 기능적 코성형),
축농증, 수면무호흡,
후각장애



고민되는 입냄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입냄새로 인해 입을 가리고 말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옆 사람의 입냄새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입냄새는 매우 흔한 문제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입냄새를 본인 스스로 느끼는 순간부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고
심할 때는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건강 정보에서는 입냄새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냄새는 왜 날까요?

입냄새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마스크를 오래 착용할 때 입냄새가 심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마스크를 오래 쓰면, 마스크 안의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고 입안의 공기 순환을 방해하여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입냄새 예방과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 침 분비 감소

침의 분비가 줄어들면 세균이 입안에서 번식하기 쉬워져 입냄새가 발생합니다. 코골이나 구강건조증이 있으면 냄새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 생활 습관

흡연, 음주, 특정한 음식(마늘, 양파, 고기, 유제품 등) 섭취는 입냄새를 일으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도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구강과 건강 문제

혀의 설태, 잇몸병, 부적절한 보철물과 같은 입안의 문제는 입냄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비부비동염, 편도결석 등 코와 인두의 질환도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몇몇 소화기 질환과 전신 질환도 입냄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약물 복용

항화합물을 포함하거나, 침 분비를 감소시키는 약물 또는 수면제를 포함한 몇몇 약물은 입냄새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호르몬 변화와 노화

월경이나 임신 등으로 생기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입냄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가 감소하고, 잇몸병이 늘면서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입냄새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대부분의 입냄새는 구강 원인으로부터 유래되므로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구강 위생을 잘 유지하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관리하면 입냄새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적인 치과 치료나 다른 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구강 위생

- 규칙적인 칫솔질과 치실, 치간칫솔을 사용하여 치아와 잇몸을 깨끗이 유지합니다.
- 혀의 설태를 혀세정기나 칫솔을 이용하여 잘 제거합니다.
- 주기적인 스케일링과 치과 검진을 받습니다.
- 필요하다면 입냄새 제거에 효과적인 구강 양치액을 처방받아 사용합니다.
- 구강건조가 입냄새의 원인이라면 인공 타액 등의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수분 섭취와 식습관 관리

- 입이 마르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물을 자주 마십니다.
- 입냄새를 일으킬 수 있는 마늘, 양파, 유제품, 고기류 등의 섭취를 조심합니다.
-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저지방 음식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당이 함유된 껌이나 사탕은 세균의 영양분이 되므로 피합니다.
- 커피, 토마토 주스, 오렌지 주스는 세균이 번식하기에 좋은 산성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되도록 피합니다.

● 생활 습관 개선

- 흡연과 음주를 피합니다.
-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입 마름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 건강 문제 해결

- 잇몸병과 충치를 치료하고, 잘 맞지 않는 보철물은 교체합니다.
- 구강 위생과 식이 조절로 입냄새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원인이 되는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의와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

자가 진단

- 아침에 일어난 후 깨끗한 종이컵에 숨을 내쉬어 컵 안의 냄새를 직접 맡아보는 방법
- 손을 청결히 한 후 손 등을 활아 냄새를 맡아보는 방법
- 치실을 이용하여 치아 사이에 낀 이물질을 빼내어 냄새를 맡아보는 방법
- 가족 간에 서로 입냄새 정도를 물어 확인하는 방법
- 혀의 백태를 면봉에 묻히고 냄새를 맡아 확인하는 방법

목소리는 타인과 마음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자, 한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고유한 색깔이다.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목소리가 변하거나 나오지 않게 될 때 느끼는 단절감과 공포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음성치료센터는 정밀한 진단과 체계적인 재활을 통해 환자들이 다시 맑은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잃어버린 목소리, 다시 찾은 삶의 울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음성치료센터



조여오는 목소리 뒤에 숨겨진 기능적 문제

평소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쥐어짜는 듯한 소리가 나 고통받던 환자 A 씨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본원 음성치료센터를 찾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짧은 문장조차 끝까지 맺기 어려울 정도로 목소리가 끊기기 시작했다. 일상적인 대화조차 힘겨워지자 A 씨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답답함에 심리적인 위축까지 겪고 있었다.

이비인후과 두경부 전문의의 후두 정밀 검사 결과, A 씨의 성대 자체에는 혹이나 상처 같은 구조적 결함이 없었다. 하지만 소리를 낼 때 성대 주위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수축하는 ‘근긴장성 발성장애’가 확인되었다. 이는 잘못된 발성 습관이나 과도한 긴장이 고착화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음성치료센터는 A 씨를 위한 맞춤형 음성재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음성재활 끝에 쥐어짜는 듯한 소리는 점차 부드러워졌고, 마침내 A 씨는 통증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다.

“원인도 모른 채 목소리를 잃어가는 줄만 알았는데, 다시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일상의 활기를 되찾았다”며 A 씨는 깊은 안도를 전했다.

최상의 목소리를 위한 전문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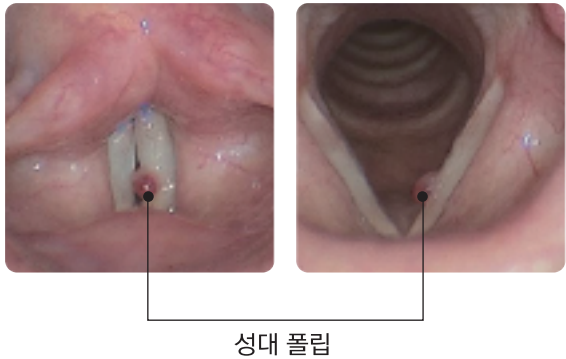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음성치료센터는 이비인후과 두경부 교수진과 음성재활 전문 언어재활사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환자 한 사람을 위한 최적의 길을 찾는다. 환자가 방문하면 먼저 고해상도 후두 내시경을 통해 성대의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이후 음향 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목소리의 주파수, 진폭, 음질 등을 객관적인 수치로 데이터화하여 환자 개개인의 목소리 특성에 딱 맞는 ‘맞춤형 재활 로드맵’을 설계하기 위함이다.

센터는 단순히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소리가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교정하는 데 집중한다. 특히 근긴장성 발성장애와 같은 기능적 문제는 올바른 호흡을 동반한 발성, 후두 근육 이완, 효율적인 공명 사용 등을 단계별로 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고도 건강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은 재발을 방지하고 환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보이지 않는 위험, 음성장애의 원인과 조기 진단

음성장애는 음성을 만들어내는 후두 및 성대의 구조나 기능, 그리고 신경 지배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성대 자체에 물리적인 변화가 생긴 ‘기질적 장애’다. 성대 결절, 폴립, 육아종 같은 양성종양부터 신경마비, 기형, 그리고 악성 종양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성대의 모양은 정상이지만 발성 기관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심리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기능적 장애’다.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근긴장성 발성장애, 발성 기관의 불수의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성대 근육이 부적절하게 수축하거나 사용되는 연축성 발성장애, 그리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심인성 발성장애 등이 대표적이다. 가장 흔한 원인은 음성의 오남용이지만, 최근에는 고령화로 인한 성대가 위축되는 노인성 후두 환자도 늘고 있다. 2주 이상 쉰 목소리가 지속된다면 중증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 피로로 치부하기보다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소리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곳

음성치료센터는 ‘환자의 목소리에 담긴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마음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의 전달을 넘어, 한 사람의 감정과 삶을 전달하는 핵심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목소리 이상으로 일상에 제약을 받는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재활 과정을 함께하며 정서적인 지지까지 아끼지 않는다.

예기치 못한 침묵 앞에 선 환자들에게 다시 노래하고 대화하는 기쁨을 되찾아주는 일, 그리고 환자 한 사람의 목소리에 담긴 소중한 삶까지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음성치료센터의 중심에 담겨 있다. 🌻

음성치료센터 의료진

이비인후과 두경부 교수 : 임윤성 / 김보해
언어재활사 : 이승현

한방(韓方)으로 건강하게

알레르기 비염

치료만큼 중요한 음식과 생활관리



알레르기 비염은 치료를 통해 금방 좋아지기도 하지만, 잘 안 낫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해서 고생하는 분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방된 약은 원래 효능이 입증된 것이지만, 개개인에 따라 그만한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알레르기 질환의 특성상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이에 대응하는 체내의 저항 능력이 부족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외부적인 환경을 외사(外邪)라고 하고, 내부적인 저항 능력을 정기(精氣)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외사에 대한 원인보다는 정기가 부족한 것이 알레르기 질환이 잘 낫지 않는 중요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의 능력을 끌어올려 면역력을 높여준다면 비염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겠죠. 이러한 정기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제일 중요한 음식 관리법에 대하여 몇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불규칙한 식사나 과식, 폭식 등은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십시오.

알레르기 질환은 리듬을 타는 질환입니다. 식사가 규칙적이지 못하고 많이 먹게 되면 대부분 몸도 리듬을 잃게 되어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염 증상이 심해지겠죠. 특히, 밤늦게 먹는 것이 제일 안 좋은데, 한방에서 식적(食積)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기 쉬워서 위(胃)에 열을 유발시키고, 불필요한 땀을 수면 중 흘리게 되며, 이로 인하여 체온이 낮아지게 되어 아침에 비염 증상이 훨씬 심해집니다.

2 가공 식품이나 인공 식품 등은 피하시고, 자연식품을 드십시오.

화학조미료, 인공색소, 방부제가 가미된 식품, 냉동 식품, 인스턴트 식품 등은 대부분 포화지방이 많아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기 쉽고 이는 알레르기를 간접적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 등을 포함한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이 좋습니다.

3 차가운 음식이나 차보다는 따뜻한 온성 식품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대부분 외부의 기온이 차거나, 체내에 한기가 들 때입니다. 따라서, 콜라나 사이다 등의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등의 찬 음식의 섭취는 비염을 심하게 하거나 오랫동안 지속시키게 됩니다. 대부분 비염 환자들은 염증으로 인한 열 때문에 갈증을 자주 느끼게 되고 찬 것을 무척 좋아하게 되지만, 막상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하게 되면 알레르기의 증상이 심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의 관련 기사에서 보면 비염에 좋은 음식이나 차라고 소개한 글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체질이나 증상에 따라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따뜻한 음식이나 차가 주류를 이룹니다. 예를 든다면 인삼, 홍삼, 꿀, 생강, 대추, 감초 등의 차 종류와 꽃감, 현미, 호박 등입니다.

4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편중된 음식 섭취는 하지 마십시오.

음식에는 오미(五味)라는 것이 있는 데,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짭짤의 5가지의 맛입니다. 이러한 오미는 항상 균형 있게 섭취되어야 건강할 수 있는데, 특히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게 그 중요성이 더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매운맛, 짭짤, 그리고 음식문화의 서구화가 되어가면서 늘어나고 있는 단

“

알레르기 비염은 약을 써도 금세 재발하고, 계절이나 환경에 따라 증상이 오르내려 오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와 함께 식사 리듬과 음식 선택을 바로잡아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비염 관리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

맛(초콜릿, 패스트푸드), 이러한 맛들의 자극적인 섭취가 오장육부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또 비염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관리 또한 중요한 질환입니다. 특히 식욕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기본 욕구 중 제일 중요한 것으로 그만큼 관리가 쉽지 않겠지만, 유념하여 실천한다면 하루하루가 좀 더 편해짐을 느낄 겁니다. 평소 관리를 열심히 하는 데도 여전히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불편하다면 전문적인 한약 처방을 받아 복용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십시오. 2024년부터 첨약의료보험 시범사업이 6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알레르기 비염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부담이 컸던 한약을 보험 적용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홍 승 욱 교수

전문진료분야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미용, 축농증,
이명난청, 시력저하질환, 안면마비



± 땅 한 평의 원력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관건립기금 모금

한 평의 땅이 모여 큰 자비의 터를 이루고,
그 위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미래 100년을 세웁니다!

‘땅 한 평’에 담긴 서원, 의료의 본질과 자비의 결합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내디딘 새로운 발걸음,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 모금은 과거 한 비구니 스님의 소박하지만, 결연한 보시에서 시작되었다. 산골 작은 절에서 전해온 “땅 한 평이라도 보시하고 싶다”라는 그 조용한 울림은 병원의 성장이 구성원과 기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이러한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2025년 12월 11일,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 모금 선포식을 시작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도약과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중증 질환부터
존엄한 돌봄까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그리는 미래의 핵심은 급성기 치료를 중심축으로 예방과 만성기 관리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의료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병원은 구체적 3단계 의료 클러스터 구축안을 추진한다. 먼저 1단계인 예방 병원 단계에서는 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힘쓰며 질병의 전조 관리부터 철저히 수행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2단계에서는 이번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으로 추진되는 신관 건립을 통해 뇌심장혈관병원 등 초급성기 및 중증 질환을 전담하는 최첨단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하며, 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망을 지키는 실천적 약속을 이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인 만성기 질환 관리 단계에서는 요양병원을 건립하여 장기 치료와 재활, 완화의료를 체계화함으로써 환자들이 더욱 편안하고 존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번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 모금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제시한 의료 비전을 현실로 옮기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 비전은 병원의 의지 위에 사부대중의 원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현실이 되며, 비로소 생명력 있는 미래로 구현될 것이다.

단순한 확장을 넘어서
미래 100년의 결의

이번 선포식은 단순한 병원 규모의 확장을 넘어 환자의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완결형 통합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백용해 병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백 병원장은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 모금 선포식을 통해 이번 모금이 단순한 병원 확장을 위한 기금 모금이 아니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언이자 미래 100년을 위한 결의의 표현임을 강조했다. 병원이 제시하는 청사진의 핵심은 지역 거점 병원을 넘어 예방, 급성기 치료, 만성기 관리, 재활 및 완화의료까지 환자의 생애 전 주기를 책임지는 완결형 통합 의료 시스템인 메디컬 클러스터의 완성에 있다.



공간을 넘어 새로운 의료 가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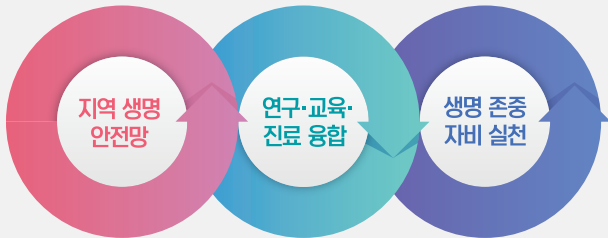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으로 건립되는 신관은 단순한 병상이나 공간의 확장을 넘어, 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번 활동은 ‘땅 한 평의 원력’ 캠페인이라는 지속 가능한 참여 활동으로 확장되어 병원과 지역, 종단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실천의 장이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생명 안전망이자 주민들이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의료 기준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중증·응급 질환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병원이라는 확고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단순한 진료 기능을 넘어 지역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적 의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둘째, 병원의 성장은 곧 동국대학교 전체의 위상 제고로 이어진다. 연구와 교육, 진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메디컬 클러스터는 대학의 학문적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는 진료 역량 강화를 넘어 교육과 연구의 질적 동반 상승을 이끄는 성과로서 모든 동국 가족이 자부심을 느끼는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단순한 치료 성과만을 추구하는 병원에 머물지 않고 의료 현장에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며 종단과 불교계가 지향하는 현대적 자비 실천의 실천 모델을 정립할 예정이다. ‘땅 한 평의 원력’에 담긴 이 숭고한 정신은 현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고귀한 유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땅 한 평의 원력’ 신관 건립 기금을 통한 의료 가치 확장

의료 불사의 서원 기부 행렬 잇따라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 모금 선포식을 통해 이해원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2,160만 원, 20평), 백용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1,080만 원, 10평), 정혁수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사무국장(540만 원, 5평) 등 리더십의 솔선수범이 이어지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구룡사 회주 정우 대종사의 1억 원 기탁을 시작으로 스님, 불자들의 정성이 한데 모이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교직원들 또한 자발적으로 약정에 동참하며 ‘병원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일구겠다’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1평(108만원), 5평(540만원), 10평(1,080만원), 50평(5,400만원), 100평(10,800만원)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037-00-000347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후원문의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대외협력홍보팀 TEL 031·961·9000

참여
방법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관건립은 약사여래의 서원을 실현하는 자비의 행으로, 모든 생명에 건강과 행복을 전하는 새로운 길을 엮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그 길의 시작이 됩니다.

Interview

우리가 직접 병원의 미래를 세웁니다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을 말하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병원장 백용해

Q1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 캠페인은 우리 병원에 어떤 전환점이 될까요?

이번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 모금 캠페인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한 단계 성장하는 수준을 넘어 의료의 역할과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이제는 초급성기부터 급성기, 회복기, 예방·요양까지 환자의 생애 전 주기를 책임지는 의료 체계로 나아가는 전환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 이식과 고난도 중증 수술 역량을 강화하고, 환자들이 결과로 신뢰하는 ‘수술 잘하는 병원’, ‘끝까지 책임지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치료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는 연속적 돌봄을 완성함으로써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역을 넘어 전국이 주목하는 의료 중심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Q2 신관 건립은 향후 병원의 진료 환경과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신관건립은 진료 공간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병원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된 진료 환경을 통해 중증·응급 환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치료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동시에

연구와 교육, 진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환경을 조성해 의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치료를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생명 안전망이자 의료의 기준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확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Q3 선포식 이후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시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직원 여러분께서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 모금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 병원의 진짜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를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직접 병원의 미래를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구성원 모두에게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자신감과 연대야말로 신관 건립을 넘어 병원의 미래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 생각합니다.

Q4 병원장님께서 그리시는 10년 후, 나아가 100년 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10년 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메디컬 클러스터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전국 어디에서든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 신뢰하고 찾는 병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관 로비에서는 간이식과 뇌심장혈관 수술의 성과를 자연스럽게 축하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임을 마친 뒤 한 명의 환자로 이 병원을 다시 찾아 후배 의료진과 직원들이 이뤄낸 성과를 보며 “결국 우리가 해냈다”고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0년 후에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불교의 자비 정신을 의료로 실천하는 동국의 자랑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Q5 마지막으로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기부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동문이자 병원장으로서, 기부자 한 분 한 분의 원력과 결단을 매우 무겁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여 주신 ‘땅 한 평의 원력’은 우리 병원이 도약하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그 뜻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지역과 사회에 자부심이 되는 병원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예술을 통한
치유로 새로운 시도를 선보인다.
병원 1층 로비에 조성된 갤러리 ‘숨’은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은 물론 지역사회에
개방된 문화 공간으로, 예술이 지닌
회복과 위안의 메시지를 더한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갤러리 ‘숨’ 개관

몸을 치유하는 병원에 마음을 치유하는 예술의 공간이 더해
졌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1층 로비에 새롭게 문을 연 갤러리
‘숨’은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그리고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열린 문화 공간으로 병원이라는 공간에
예술이 지닌 치유의 숨결을 불어 넣고 있다.

병원은 흔히 긴장과 불안, 기다림의 시간이 교차하는 장소로
인식된다.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 쉼 없이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 모두에게 병원은 간절함과 피로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갤러리 ‘숨’은 잠시 멈추어 서서
깊이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작은 안식처가
된다. ‘숨’이라는 이름에는 생명과 쉼, 그리고 한 호흡의 깨어
있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예술로
치유를
더하다

숨
Gallery
SUM



개관 기념 첫 전시
강민정 작가 초대전 ‘순환’

갤러리 ‘숨’의 개관을 기념하는 첫 전시는 강민정 작가의 초대전
〈순환〉이다. 이번 전시는 ‘순환’이라는 주제를 통해 삶이 흐르고,
멈추는 듯 보이지만 다시 이어지는 과정을 잔잔하게 보여준다.
작품 속에서 표현된 선과 색, 리듬은 고통과 회복, 긴장과
이완이 맞닿아 있는 인간의 삶을 마치 호흡과 명상처럼 담담
하게 풀어낸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순환’이라는 키워드는
신체의 회복 과정은 물론, 마음의 치유와 재정비를 떠올리게
한다.

강민정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해 “순환은 멈춤이 아니라 더
나은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특히 작가는
과거 병마와 싸우던 시절, 병원 로비에 전시된 작품을 통해
위로를 받았던 개인적인 경험을 전하며 언젠가 자신의 작품으로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번 전시에
임했다고 밝혔다. 시간과 공간이 단절되지 않고 생성과 소멸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의 흐름을 담아낸 작품들이 갤러리
이름처럼 많은 이들에게 맑은 ‘숨’을 건네길 바란다는 작가의
바람은 병원 공간과 깊이 맞닿아 있다.

작가 강민정 ▶ 한국미협, 대구미협, 표상회, 자관전,
동국대학교(WISE) 디자인미술학과 조교수



머무는 순간,
마음이 쉬어가는 곳

갤러리 ‘숨’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병원 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진료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간병으로 지친 순간, 혹은 바쁜 업무 중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 찰나에 작품 앞에 멈춰 서는 경험은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모두에게 마음의 여백을 선사
한다. 이는 치료가 신체를 넘어 마음의 안녕으로 확장
되는 과정이며, 병원이 지역사회와 감성을 나누는
또 하나의 통로이기도 하다.

앞으로 갤러리 ‘숨’이 누구나 편안히 머물며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열린 치유의 쉼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몸의 회복을 위한 의료 행위와 더불어,
예술을 통해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 공간이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의 치유 철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예술은 일상과 떨어진 곳이 아니라 가장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서 함께 숨 쉴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갤러리 ‘숨’이 병원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



환자의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재활전문센터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재활전문센터는 뇌졸중·파킨슨병 등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재활전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양·한방 협진과 분야별 전문치료, 일대일 맞춤 계획을 통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며 실력과 마음을 겸비한 의료진의 소통과 팀워크로 환자에게 신뢰와 편안함을 주는 재활 공간을 지향한다.



전문성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재활의 최전선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재활전문센터는 단순한 치료 공간을 넘어 '재활전문센터'라는 이름에 걸맞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센터를 찾는 주요 환자군은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파킨슨병, 안면마비,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이다. 이에 맞춰 운동, 작업, 물리, 인지, 언어, 도수, 안면마비 치료실로 세분화되어 있다. 중추신경계 질환 등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한 환자들이 방문했을 때, 환자가 원하는 치료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배치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재활전문센터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실력'과 '마음'이다.

센터의 모든 의료진은 무엇보다 치료를 제대로 해내야 한다는 신념 아래, 환자가 믿고 맡긴 치료 시간이 단 1분도 헛되지 않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 동시에 병원이라는 공간이 자칫 딱딱하고 거리감 있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이미지를 넘어서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가 심리적인 안정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환경을 조성해, 다시 찾고 싶고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센터의 목표다.

양·한방 협진과 일대일 맞춤 케어의 시너지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재활전문센터의 강점은 양·한방 전문의의 긴밀한 상호협동진료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양방과 한방의 장점을 결합한 동시 치료를 시행하여 증상 개선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모든 환자에게 일괄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한 분 한 분의 특성에 맞춘 일대일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운동치료부터 작업, 통증, 도수, 안면도수, 언어,



인지치료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전담하여 지도와 상담을 병행한다. 치료 과정 중에도 환자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피드백하여 계획을 수정·보완하며, 치료사 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치료의 공백 없이 최상의 효과를 끌어낸다.

소통과 존중으로 완성되는 전문가 집단

재활전문센터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필두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소통 문화'다. 직종이나 나이, 연차의 차이와 관계없이 환자 치료에 관한 의견이라면 신입 치료사부터 과장급 의료진까지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자유롭게 표현한다. 이러한 존중의 문화는 치료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느끼는 이용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진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재활전문센터 이광욱 파트장은 "우리 센터 구성원들은 전문가로서 업무에 임할 때는 한 없이 진중하지만, 동료 간에는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화합의 정신을 발휘한다"고 센터 분위기를 설명한다. 이러한 팀워크는 결국 환자에게 품격 있는 의로서비스로 환원된다.

이 파트장은 "치료 실력은 물론, 사람을 대함에 있어 겸손과 품격을 갖춘 치료사들이 있는 곳으로 환자들에게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봄을 맞이하며

모든 것이 쫄쫄 얼어붙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한겨울에는
이 기나긴 겨울이 언제 지나가리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그렇게 긴 겨울도
어느새 지나가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품은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따뜻한 생명력을 품은 봄이
더 반가운 이유는 겨울의
모진 추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보통 나와 뜻이 맞는 사람만 함께 하려 하고,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려 한다.
그러나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 나와 맞지 않고,
내 뜻에 거스르게 보여도,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키워주는 원동력이 되어 주리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각자 역할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진짜 보석을 발견할 수 있다.
단점만 보이는 것에서 장점을 찾을 수 있고,
모자란 부분에서 오히려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부처님 당시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부처님께 귀의한 의사 기바(耆婆)가 젊은 시절 의술을
공부할 때의 일이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 10년 동안 의술을 익힌 기바는
자신이 배운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 여쭙었다.
“부처님, 제가 의술을 익힌 지 십 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배우면 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 그래. 그럼 어디 네 실력을 알아보기로 하자.
앞으로 사흘 동안 어디를 가든지 좋으니,
약초가 아닌 풀들만 캐어오도록 하거라.”
기바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이 산 저 산을 돌아다니며
약초가 아닌 풀을 찾고 또 찾았으나, 약초가 되지 않을
풀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공부가 아직도
덜었음을 느끼며 돌아왔다.

“사흘 동안 온 산천을 헤매었으나 약초 아닌 풀은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만하면 훌륭한 의사 노릇 할 자격이 있구나.
이제 그만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보살피고
치료해 주거라.”

이처럼 독초도 잘 쓰면 약초가 되니, 세상의 온갖
풀 중에서 약초가 아닌 풀이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도 아닌 것이 없고, 스승 아닌 사람이 없다.

‘팔십 노인도 세 살 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듯이,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나를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고마운 존재이다. 나와 딱 맞는 달고 즐거운 것과
나와 절대 맞지 않는 쓰고 괴로운 것이 모두 나를
성장시켜 줄 훌륭한 거름이 된다.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저 처지에
놓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조금이라도
들게 된다. 삶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면 그곳에서
벗어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얼었던 땅이 녹고 만물이 깨어나는 이 아름다운 봄날에
우리는 각자 자신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뿌리고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보면 좋겠다. 곡식을 얻으려면 밭을 갈아
씨를 뿌려야 하고, 큰 부자가 되려면 널리 베풀어야 하며,
장수를 누리려면 큰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배우고 물어야 한다. 내 마음속에 어떤 인연의
씨앗을 심고 공들이고 정성껏 기를 것인가? 🌸

글 무여스님

現 고양시 보리선원 주지 / 유튜브 '무여스님 TV' 운영 /
달마사 · 화계사 · 연운사 불교대학 강사 / 저서 <우리 함께 떠나요>

템플 스케치

전라남도
해남군
미황사

흙과 바람, 바다를 펼쳐두고 사람을 기다리는 절

글·그림 배종훈

낮에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밤과 주말에는 여행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느긋한 외로움을 즐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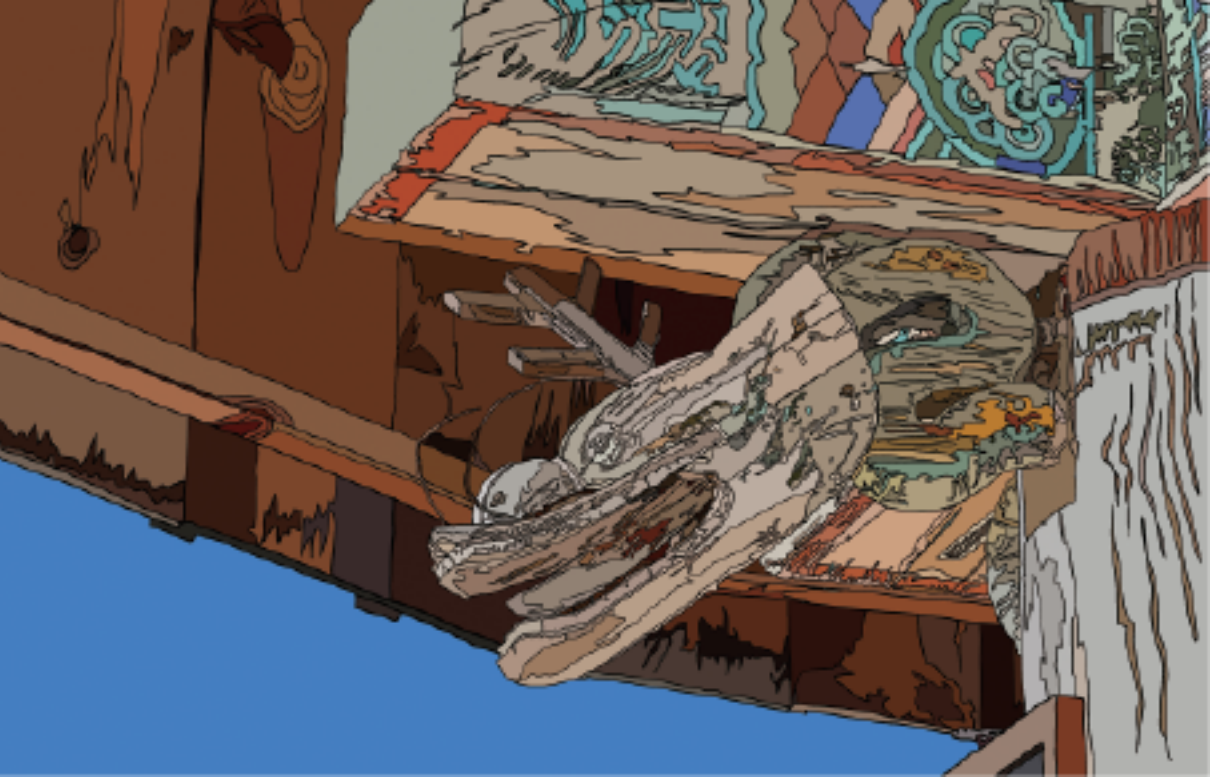
〈출간도서〉유럽을 그리다, 치마 끝 풍경이 내게 물었다, 마음을 두고 와도 괜찮아, 행복한 명상카툰 외 다수.

#1

절의 입구는 안개가 가득해 습한 기운이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은 시간. 나는 일주문을 지나 어두운 계단을 이유 없이 서둘러 오르고 있었다.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을 이 길이 오로지 내 발걸음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둡지만 두렵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일주문을 지나 자하루까지 그리 먼 길이 아니었는데 계단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마지막 계단을 오르는 순간 탁 트인 마당이 나타났는데 그곳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모여 있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로 걸어가니 마당의 안개가 걷히고 눈앞에 빛으로 둘러싸인 대웅보전이 모습을 드러냈다.

꿈이었다. 미황사에 대한 기대와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고대하고 있었던 미황사 방문을 다시 미루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꾸넌 꿈일까? 새벽에 서둘러 출발해 미황사 일주문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야 마음이 편안해졌다. 꿈에 본 일주문의 모습과 계단, 천왕문으로 오르는 길이 그대로 눈 앞에 펼쳐져 있었다.





#2

남도의 3월 태양은 뜨거웠다. 서둘러 온 따뜻한 기운에 반소매 차림의 사람들도 보였다. 절 마당이 한눈에 보이는 응진전 앞 돌계단 중간쯤에 앉아 햇볕을 쬔다. 황토색 마당과 잉크를 풀어 둔 푸른 하늘, 적당한 햇볕, 산바람에 일정하게 흔들리는 풍경소리가 음악처럼 들렸다. 멀리 남해의 바다가 보이는 미황사 마당이 내가 기억하는 절집 마당 중에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이었다.



#3

혼자 떠난 여행의 최대 장점은 침묵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말을 줄이면 생각이 깊어지게 마련이고 생각이 깊어지면 행동이 조심스러워진다. 작은 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살펴보게 된다.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하나라도 줄이면 그만큼의 여백으로 자신과 주변을 살필 여유가 생긴다. 소리 없는 법당에 앉아 있는 무료함이 따뜻하고 편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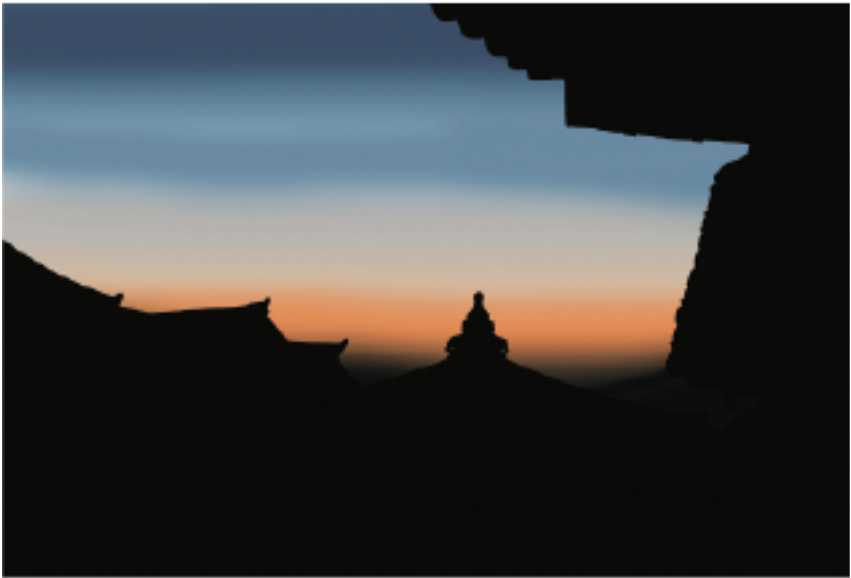
응진전 벽면에 그려진 벽화에 여기저기 카메라를 들이대 보지만 어느 곳도 제대로 담을 수가 없다. 결국 카메라를 내리고 그 앞에 서서 둘 밖에 없는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았다. 특별히 빌 것도 없으면서 무엇이든 빌어보고 싶어졌다.



#4

해가 지며 세상이 어둠으로 들어서는 자리에 서 있으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해야 할 일에 대해 평생 질문하고 찾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의 끝에서 오늘의 삶이 아쉽지 않았는지 헛된 순간은 없었는지 돌아봤다. 사는 동안 그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순간순간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면 생의 끝에서도 웃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 바다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내려와 자동차 시동을 걸었다. 첫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들뜬 기분이었다.



승소 판결문, '휴지조각'이 되지 않으려면? 위장이혼 재산 회수 전략



박창진(가명)은 직장동료 김도기(가명)에게 제2의 코로나가 유행하여 마스크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마스크 제작, 판매 사업을 시작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김도기는 박창진의 사업 계획을 듣고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점점 늘어나서 1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알고 보니, 박창진은 같은 직장 내 다른 동료들에게도 같은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대부분 갚지 않았다. 김도기는 박창진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그럴 때마다 박창진은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아직 수익을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변제를 미루어왔다. 김도기는 다른 직장동료 안고은(가명)으로부터 박창진이 사업을 하기는 했지만 오래전에 망해서 투자 자본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그 사이 박창진은 직장을 그만두었고 김도기가 다시 한번 박창진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박창진은 본인이 빌린 돈을 무조건 갚겠고 현재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대금으로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도기는 박창진의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결국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박창진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김도기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무렵 박창진은 아내 최말자(가명)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상태에 있었다. 다른 직장동료들은 아내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돌려받기 어렵다고 해서 사기로 형사고소를 했지만, 재산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채무자가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내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되찾을 방법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넘긴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부부간의 재산 이전은 채무자의 빼돌리기 의도와 배우자의 가담 사실(악의)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원상복구 시킬 수 있다. 다만, 적절한 재산분할을 초과한 부분에 한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를 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다.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 고소를 하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민사 소송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채무자 측은

“

채무자가 재산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이나 증여 형식으로 넘겼다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거가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루어졌고, 적절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 측은 재산분할명세표 등 적절한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서 제출명령신청, 금융거래정보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적정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승소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다. 김도기는 적절한 시기에 관련 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단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

글 주상은

現 원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및 건설 전문 변호사로서, 수용재결, 손해배상 등 다양한 민사사건을 다룬다.

묵인 감정, 꼬인 인연, 멈춘 마음을 푸는 ‘어른의 지혜’

힘든 감정을 흘려보내고 마음의 주인으로 사는 법

상처, 관계, 분노, 우울,
힘든 감정을 흘려보내고 마음의 주인으로 사는 법

“이 관계, 이 감정...,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지?”
마음에 여유가 없고 관계가 소홀해질 때, 상실과 공허가
깊어질 때 삶은 흔들린다. 마음이 흘러가야 할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위로와 조언도 잠시뿐이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힘든 감정을 흘려보내고 마음의
주인으로 사는 길이다.

템플스테이의 전설이자 ‘힐링 멘토의 원조’ 마가 스님은
40년 수행 끝에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다. “없애려 애
쓰지 않고 흐르게 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삶은 완성
된다.” 스님은 무상(無常)의 지혜에서 묵인 감정과 꼬인
인연, 멈춘 마음을 풀어내는 ‘흐름의 기술’을 발견했다.
분노와 억울함, 두려움과 후회는 밀어내거나 붙잡아둘
대상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할 마음의 손님이다. 억지로
참거나 강해지려 할수록 마음은 더 막힌다.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고 호흡으로 다독이며 흐름을 허용할 때
우리는 ‘어른의 마음’에 가까워진다. 어른이란 더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스님의 메시지다.

이 책은 상처와 인연, 갈등과 비움, 감사와 나눔을 ‘흐름’
이라는 하나의 원리로 풀어낸다. 과거에 갇히지 않고
인연에 매이지 않으며, 마음이 스스로 지나갈 길을 열어
주는 태도. 그것이 스님이 말하는 ‘어른의 행복’이며,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흐름의 기술’이다.

출가 40년 수행자의 내공으로 건져 올린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진짜 위로

템플스테이가 낳았던 시절 수많은 이들과 울고 웃으며
마음을 나눈 시간, 수강 신청이 1초 만에 마감되던
중앙대 ‘내 마음 바로보기’ 교양 수업에서 대학생들과
함께한 치유의 순간, 선방에서의 치열한 수행과 명상
지도자로서의 삶. 이 모든 경험이 출가 40년의 내공
으로 쌓여 문장마다 깊이와 온기를 더한다. 말 한마디,
문장 한 줄이 공허하지 않은 이유다. 스님은 자신의
삶에서 길어 올린 무상(無常)의 지혜를 고전의 문장들과
연결해, 수천 년 이어진 마음의 구조를 쉽게 풀어낸다.

“중은 비워야 소리를 멀리 보내고,
강은 아래로 흘러야 바다에 이른다.”

“나무는 꽃에 집착하지 않아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든다.”

“나중에 행복하겠다는 마음은 지금을 불행하다고
믿는 것이다.”

익숙해서 흘려들던 말들 속에는 삶의 지혜와 진심이
담겨 있다. “끼니는 꼭 챙겨 먹어”, “항상 조심해” 같은
말처럼, 흔해서 가볍게 넘겼던 말의 무게는 잃고 나서야
깨닫기 마련이다. 마가 스님의 말은 그런 진심들이 생애
전체와 엮이며 새롭게 다가온다.

스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흐름의 기술’이라는 어른의
지혜를 전한다. 목숨을 구해 준 노스님, 법명을 내려준
은사 현성 스님, 분노를 감사로 바꾸게 한 청화 스님,
참된 행복을 알려준 용타 스님과의 인연 속에서 마음의
방향을 ‘때문에’에서 ‘덕분에’로 바꾸어 왔다. 멈춰 있던
삶을 다시 흐르게 하고, 그 흐름 위를 서핑하듯 살아온
것이다.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는 마음의 전환, 그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책이 『어른이 되는 흐름의 기술』
이다.

안고 자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책

‘웬지 안고 자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다.’

이 책을 받자마자 든 생각이다. 사진을 찍어 저자에게
보내며 “스님의 마음결처럼 예뻐서 안고 자고 싶다”고
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출가 수행자로 살아온
40년과 60년 넘게 흘러온 인생의 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는 흐름의 기술
마가 지음

『어른이 되는 흐름의 기술』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고단한
과거와 화해하며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마가 스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스님의 삶은 강물의 중심이 아니라,
강변의 흐름을 적시며 바다로 흘러가는 물 같았다. 알아
주지 않아도, 치켜세우지 않아도 그 길 위에서 묵묵히
지혜와 자비로 흘러왔다. 비주류였지만 결국 바다에
이르고, 이르지 못해도 세상에 이로운 비가 되는 물.
스님의 인생이 그러했다. 그래서 그 삶을 안아주고
싶었다.

환갑을 훌쩍 넘긴 지금도 스님은 여전히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을 숨기지 않고, 흐름의 기술을 함께 연습하
자고 손을 내민다. ‘버텨라’, ‘강해져라’ 같은 무거운
위로가 아니라서 더 따뜻하다.

어른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은 채 마음이 스스로 지나갈 길을 열어 주는 사람이
라는 스님의 말이 깊은 위로로 다가온다. 삶의 경험이
녹아 있는 이 글들은 비슷한 자리에 선 이들에게 어떻게
흘러가면 좋을지를 조용히 알려준다. 그래서다. 이
책은 안고 자면, 그냥 편안해질 것만 같다. 🌸

DUMC NEWS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최민석 교수 ·
외과 김성룡 교수 · 마취통증의학과
최준권 교수 협진, 고난도 수술 성공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최근 사망 위험이 극도로 높은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고난도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환자는 사망률 90%에 육박하는 ‘복부 대동맥류 파열’ 상태로 내원했으며, 심장혈관 흉부외과 최민석 교수팀이 인조혈관을 이용한 복부대동맥 치환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십이지장 손상이 확인돼 치명적인 감염과 재파열 위험이 제기되자 외과 김성룡 교수팀이 외과 최고 난이도의 ‘유문보존췌십이지장절제술’을 추가로 시행했다. 수술 전 과정에서는 마취통증 의학과 최준권 교수를 중심으로 한 마취팀이 협진에 참여해 두 차례의 대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1. 심장혈관흉부외과 최민석 교수
2. 외과 김성룡 교수
3. 마취통증의학과 최준권 교수

이비인후과 김보해 교수 ·
의공학교실 광봉섭 교수 연구팀,
체외 구강 점막 칩 기술 개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김보해 · 광봉섭 교수 연구팀이 3차원 세포배양 기술을 융합해 항암제 독성과 치료 효과를 정밀 평가할 수 있는 ‘체외 구강 점막 칩’을 개발해 세계적 권위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IF 19.0)에 게재됐다. 이 플랫폼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일부 대체하며 연구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평가된다. 연구팀은 구내염 발생 기전 규명과 난치성 구내염 치료제 개발은 물론, 다양한 제형과 질환으로의 확장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비인후과
김보해 교수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광봉섭 교수

이비인후과 김진엽 교수, 2025 한국
연구재단 · 교육부 우수성과 50선 선정

이비인후과 김진엽 교수가 AI 기반 분석 기법을 활용한 수면무호흡증 예측 연구로 2025년 한국연구재단 · 교육부가 선정하는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됐다. 이번 연구는 의학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국제학술지 논문(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IF 19.3) 게재 성과와 특허 등록 등 기술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인정받았다.

김진엽 교수는 수면무호흡증 진단 목적이 아닌 부비동 CT 영상을 AI 기법으로 분석해 예측에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 보건 의료
기술사업화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보건산업진흥 보건 의료 기술사업화 유공 포상’ 단체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포상은 보건 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을 받은 기관 중 국내 보건 의료 산업 발전과 기술사업화 촉진에 기여한 유공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 의료기기 기업의 병원 테스트베드 제공, 임상 연계 R&D 및 사업화 지원 성과를 인정받았다.



차세대 표면유도 방사선치료 시스템
‘루나 3D’ 운영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방사선치료의 정밀도와 안전성을 높이는 최신 표면유도 방사선치료(SGRT) 장비 ‘루나 3D(LUNA 3D)’를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장비는 특수 카메라로 환자 몸 표면을 실시간 스캔해 치료 중 자세 변화를 1mm 이하 오차 범위로 감지하며 피부 표시 없이도 정확한 치료 부위 설정이 가능하다. 특히 가상 레이저 기능을 통해 치료 위치를 직관적으로 안내해 고난도 방사선치료에서도 빠른 자세 조정이 가능하며, 치료 기간 동안 별도의 신체 표시가 필요 없어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였다.



사찰음식 치유의학 연구소 개소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사찰음식 치유의학 연구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연구 · 개발(R&D)에 착수했다. 의과대학 산하 연구소는 사찰음식의 영양학적 가치와 의과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규명해 암과 만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백용해 병원장과 임윤정 연구소장(소화기내과 교수), 진관사 성돈스님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 연구소장은 사찰음식의 건강 효능을 의학적으로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백 병원장과 성돈스님은 연구소의 발전과 치유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
협진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양 · 한방 협진 우수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각 과에서 선별한 협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양 · 한방 협진의 임상적 의미와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회에서는 협진으로 회복을 앞당기고 삶의 질을 향상한 사례, 양방 검사를 통해 질환의 초기 상태와 예후를 정확히 파악한 뒤 한방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사례, 한방병원 입원 중 발생한 급성 질환을 양방 협진으로 치료해 환자가 계획된 치료 과정을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QI 경진대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은 2025년 QI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 앞서 QI 포스터 전시 및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최우수 포스터상이 선정되었다. 대상은 외래간호팀 황지유 간호사가 발표한 ‘전화 예약실 · 외래(진료과) · 검사실 간 예약 프로세스 개선활동을 통한 내 · 외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주제로 통합예약실 만들어 볼까?팀이 수상했다. 최우수 포스터상은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SBAR 교육 강화 및 적용을 통한 환자 안전 활동’을 주제로 한 소통처방전팀이 수상했다.



‘리더십 워크라운드’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백용해 병원장, 진료부원장, 간호부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여한 가운데 ‘리더십 워크라운드’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42, 71, 81, 92병동, SICU, 외래, 인공신장실, 분만장, 전담간호사실 등 총 9개 부서를 직접 방문해 의료 현장의 안전 위협 요인을 점검했다. 특히 경영진은 각 부서원으로부터 업무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백용해 병원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안과 이승우교수 한국포도막학회,
한국망막학회 우수 논문발표상 수상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안과 이승우 교수가 한국포도막학회로부터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한국포도막학회 심포지엄에서 ‘안내염에서의 포비돈-아이오딘 주사 치료의 가능성’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해, 학문적 완성도와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 논문 발표자로 선정됐다. 또한 이 교수는 한국망막학회 총회학술대회에서도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구연 부문 우수발표상을 수상하며, 안과 분야 학술 연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울릉군 응급의료 부문 경상북도지사
감사패 수여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이 ‘2025년 경상북도 공공 의료 성과대회’에서 공공 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울릉군 응급 의료 강화 지원을 비롯해 필수 의료 공백 해소 정책에 적극 참여하며 전문의를 파견해 진료에 힘쓰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울릉군 응급 의료 파견진료는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 지역의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주병원은 2025년부터 응급환자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력과 신속한 진료 지원을 통해 응급 상황 대응 역량을 높이며,

도서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급성기 환자를 위한 중환자실(AICU) 개소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급성기 중환자실(AICU)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급성기 중환자실은 급성기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중환자실로 골든타임이 중요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치료할 수 있다. 중환자실은 음압격리 3병상, 일반격리 2병상을 포함한 총 10개 병상으로 운영된다. 신혜경 병원장은 “급성기 중환자실은 고령 및 중증 환자의 증가에 따른 고위험군 중증환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환자 진료의 인프라를 질적으로 향상시켰다”고 전했다.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협력병원 지정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소방청으로부터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협력병원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어려움 예방과 지원을 위해 소방청에서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소방공무원들의 체계적인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치료하게 된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우울, 불안, 수면장애, PTSD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진료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뇌 MRI, 수면다원검사 등 전문적인 검사를 통한 심층 분석까지 가능해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이루어진다.



개원 30주년 기념 엠블럼 · 슬로건 공개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개원 3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엠블럼과 슬로건을 제작 · 공개했다. 이번 30주년 기념 엠블럼은 동국대학교의 심벌마크인 햇살무늬를 모티브로 디자인됐다. 또한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넘어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병원의 의지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슬로건에는 부처님처럼 ‘자비’로운 마음으로 환자를 바라보고 진정한 ‘치유’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겠다는 병원 구성원의 다짐이 담겼다. 김근우 병원장은 “2026년을 맞아 단순한 30주년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병원의 정체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억에 남는 성과와 도약을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도약을 위한 3000배 릴레이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새로운 도약과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100일의 기적, 함께하는 3000배’ 입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병원의 도약을 염원하는 임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됐으며, 100일 동안 임직원들이 차례로 절을 올려 누적 3000배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를 이끈 지도법사 보경스님은 “모두의 바람이 곧 나의 바람이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하며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하며 화합과 공동체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병원 측은 이번 입재식이 자비와 정진의 의미를 되새기며 임직원 간 팀워크와 결속력을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환자와 가족 위한 음악회 개최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환자와 가족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음악회를 개최했다. 재능기부 자원봉사자와 병동 이솔미 간호사의 연주로 문을 연 음악회는 이후 완화의료팀원들이 함께 참여한 나눔 이벤트로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치료 중심의 공간을 넘어 환자의 마음까지 보살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미숙 센터장은 “앞으로도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우리 병원만의 따뜻한 완화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시 공덕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 캠페인, 총 7천만 원 약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025년 12월 11일, 신관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모연 캠페인 ‘땅 한 평의 원력’ 선포식에서 이혜원 의료원장이 2,160만 원(20평)을 기부 약정하며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 백용해 병원장이 1,080만 원(10평), 정혁수 사무국장이 540만 원(5평)을 각각 약정해 신관 건립을 위한 뜻을 함께했다. 특히 선포식 당일에만 교직원들이 총 7천만 원의 기부를 약정하며 신관건립을 향한 뜨거운 의지를 보였다.



구룡사 회주 정우 대종사,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으로 1억 원 기부

구룡사 회주 정우 대종사의 깊은 원력이 담긴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 1억 원 전달식이 2025년 12월 23일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달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큰스님을 비롯해 법인·대학·의료원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정우 대종사의 원력과 뜻을 되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나눴다. 기부금은 대종사의 뜻에 따라 상좌인 성화스님과 각심스님이 대신 전달했다.



춘천 봉덕사 故 각림스님과 명관스님, 발전기금 2천만 원 보시 회향

2025년 12월 20일, 춘천 봉덕사(주지 혜옥스님)에서 故 각림스님과 명관스님의 원력이 담긴 병원 발전기금 전달식이 열렸다. 두 스님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발전을 발원 하며 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희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혜옥스님과 백용해 병원장, 김동일 한방병원장이 참석 했으며, 혜옥스님은 “불법은 삶 속에서 서로의 체온이 되어주는 일”이라며 회향의 뜻을 전했다.



군위 동림사 주지 명심스님이, 2천만 원 기부

군위 동림사 주지 명심스님이 지난 1월 16일,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을 방문하여 병원 발전을 위한 기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명심스님은 “동국대경주병원이 불교종립병원으로서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는 등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지역민들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정진해달라”고 격려했다.

석림사 법인스님, 발전기금 2천5백만 원 보시 회향

석림사 법인스님이 지난 1월 23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2,500만 원을 기부했다. 법인스님은 최근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야 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으나, 의료진의 헌신적인 진료와 돌봄 덕분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스님은 퇴원 후 “어려운 치료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도와준 의료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며 기부 의사를 전했다. 법인스님의 자비 나눔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5년 11월 3,000만 원 기부에 이어 총 5,500만 원을 후원했다.

이관용님·윤상래님, 발전기금 1억 원 쾌척

이관용·윤상래 부부의 깊은 원력이 담긴 발전기금 1억 원 전달식이 지난 1월 21일 병원 기부자 라운지에서 열렸다. 이번 기부는 現 동국대학교의료원 이해원 의료원장의 부모인 이관용·윤상래 부부가 병원 발전을 위해 실천한 ‘가족의 무주상보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전달된 기금은 의료장비 구입 등 병원의 진료 환경을 개선하는 데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언제나 동국대학교병원을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기부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법보선원	300,000,000	송혜경	10,000,000	선보스님	1,170,000
동준스님	100,000,000	고동숙	7,000,000	이상미	1,170,000
보각스님	100,000,000	각광스님	6,600,000	법명스님	1,110,000
이관용 · 윤상래	100,000,000	곽범석	5,550,000	이정스님	1,110,000
정우 대종사	100,000,000	구남이	5,430,000	김옥선	1,080,000
최 * 희	100,000,000	도한호	5,400,000	원광사	1,080,000
법인스님	55,000,000	성관스님	5,400,000	일여스님	1,080,000
이위재	50,000,000	해인스님	5,400,000	진견스님	1,080,000
故신철스님	21,600,000	현조스님	5,000,000	故최진규	1,080,000
명심스님	20,000,000	박정수	5,000,000	보관스님	1,000,000
일광스님	20,000,000	일 * 스님	3,240,000	상규스님	1,000,000
해등스님	20,000,000	성 * 스님	3,240,000	승현스님	1,000,000
(주)아라니아	15,000,000	철은스님	3,240,000	오동준	1,000,000
금주스님	15,000,000	밀알복지재단	2,400,000	오세희	1,000,000
장영숙(故정영은)	15,000,000	정준호	2,150,000	이경희	1,000,000
해선스님	10,800,000	자향스님	2,000,000	전통국악예술교육협회	1,000,000
박 * 금	10,150,000	진 * 스님	2,000,000	조인하	1,000,000
묘희스님	10,090,000	피재열	2,000,000	최승렬	1,000,000
故각림스님	10,000,000	홍순지	2,000,000	환월스님	1,000,000
故대운스님	10,000,000	정목스님	1,700,000	황 * 순	1,000,000
명관스님	10,000,000	노인섭	1,500,000	황의선	1,000,000
백수활	10,000,000	이명규	1,500,000		(단위 : 원)
선본스님	10,000,000	백용해	1,200,000		

금융사 해선 스님, 故 불곡당 신철 대종사 유지 받들어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 쾌척

금융사 해선 스님이 故 불곡당 신철 대종사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평생 자비의 가르침을 실천해 온 故 신철 대종사의 유지를 받든 것으로, 故 신철 대종사의 이름으로 2,160만 원 (20평)을 회향하고 여기에 해선 스님이 1,080만 원(10평)의 원력을 더해 총 3,240만 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재)법보선원 ‘로봇수술센터 구축기금’ 3억 원 보시 회향

(재)법보선원은 지난 1월 30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발전을 위해 ‘로봇 수술센터 구축기금’으로 2억 원을 회향했다. 이는 지난 1월 9일에도 1억 원 기부에 이은 새해 두 번째 기탁이다. 이번 기부는 송담 큰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의 깊은 원력이 모여 이루어진 것으로, 로봇수술센터 구축을 위해 총 40억 원을 약정하고 현재까지 36억 원을 기부하며 병원 의료 인프라 확충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가산스님	권오성	김미경	김은정	김희석	모수스님	박진우	성덕스님	신형근	원명스님	이명호	이재순	임동하	정승현	주주환	최정민	해륜스님
각무스님	권오현	김미경	김은정	김희영	묘전스님	박창훈	성범스님	신형신	원용문	이명희	이재은	임명숙	정삼스님	주혜스님	최정민	해안스님
감로수	권일진	김미경	김은지	김희진	성보스님	박채린	성보스님	신희영	원해스님	이무철	이재환	임민해	정앙임	지광스님	최정숙	해연스님
강경민	권재영	김미선	김은진	나경스님	무구스님	박철근	성본스님	신희정	유경자	이문정	이재훈	임상혁	정언우	지련스님	최정화	해원스님
강경수	권태용	김미숙	김은희	나득영	무진스님	박철호	성수스님	심규용	유광옥	이문희	이정민	임선희	정연화	지묵스님	최주하	해원스님
강경임	권태형	김미영	김의정	남유화	무진스님	박태열	성수현	심미나	유기용	이문희	이정백	임성미	정예지	지연순	최주하	해정스님
강명숙	권해경	김미영	김의현	남정애	문민석	박해련	성숙희	삼산스님	유미숙	이미란	이정숙	임성우	정욱제	지영한	최준용	해철스님
강명희	권희경	김미자	김익환	남현미	문수진	박현강	성원석	심상우	유서영	이미수	이정인	임영숙	정원기	지운스님	최진규	혼성스님
강석진	권희재	김미형	김인숙	노경란	문유찬	박현숙	성원스님	심영경	유선주	이미숙	이정우	임용규	정원스님	지유스님	최진영	홍민재
강선영	권하여자	김미화	김인순	노명서	문장우	박현식	성윤건	쌍계사	유영순	이병기	이정은	임윤정	정윤정	지일스님	최창익	홍민희
강세영	중학교	김민경	김인영	노명화	문지혜	박현식	성진스님	안대성	유영철	이병훈	이정임	임재범	정은경	지혜스님	최현정	홍성희
강시우	금오스님	김민규	김인자	노현주	문지혜	박현식	성창훈	안대송	유정임	이보영	이정훈	임재선	정은경	지현스님	최효선	홍성옥
강연주	길민준	김민성	김재은	농지스님	밀영스님	박효진	성학스님	안도화	유휘정	이상권	이정화	임재유	정이선	진경스님	최효식	홍유실
강은석	김가빈	김민재	김전총	담원스님	박경문	반공스님	성현스님	안선영	유주형	이상숙	이정희	임종대	정인혜	진경애	최효원	홍은순
강인자	김가연	김민정	김정미	대공스님	박경숙	방동률	성효은	안숙자	유지영	이상순	이제선	임지현	정일스님	진묘스님	최희원	홍은정
강종모	김가연	김병환	김정미	대과스님	박 관	배상만	세영스님	안영길	유현숙	이상윤	이종철	임창금	정재스님	진성스님	탁경효	홍재갑
강지영	김가영	김보승	김정민	대엽스님	박기병	배서영	소선기	안인숙	유형주	이상현	이주는	자광스님	정재우	진성스님	탄웅스님	홍주해
강태양	김강림	김보은	김정배	대원스님	박나현	배수현	소연스님	안주향	윤금섭	이상훈	이주택	자운스님	정재현	진영숙	탄정스님	최승혜
강태호	김강태	김봉실	김정섭	대한불교	박대호	배정환	소은숙	안지은	윤기화	이서현	이주현	장대현	정정숙	진임자	탄하스님	한성희
강해성	김경숙	김삼기	김정수	조계종	박동우	백경현	소정자	안향옥	윤민아	이선아	이주현	장미란	정제영	차시연	판정자	황귀자
강현숙	김경숙	김상현	김정애	법원사	박동진	백서연	소행연	안홍민	윤병하	이선영	이주희	장승자	정주스님	차옥련	표근중	황기순
강현우	김경옥	김상형	김정형	대한불교	박동화	백윤정	순경선	양광영	윤복연	이선희	이주희	장승자	정 준	차행운	표정연	황석환
강혜진	김경의	김선경	김정혜	조계종	박명희	백찬기	순경옥	양오남	윤성님	이세임	이준길	장유민	정지우	채은미	이경임	황선영
경륜스님	김경자	김선순	김정호	본원사	박미순	범선스님	순귀득	양인숙	윤성현	이소영	이지영	故장윤대	정지희	천수자	하민영	황설희
경보호	김경택	김선욱	김정훈	대한불교	박미형	법륜스님	손기원	양준영	윤수임	이소정	이지영	장윤정	정차일	천지스님	하소임	황순덕
경은스님	김경호	김선주	김정희	조계종	박미혜	법정스님	손영희	엄정훈	정수선	이수빈	이지원	장이순	정하영	천진영	하윤경	황영지
경조스님	김경희	김선희	김종대	본덕사	박민경	법진스님	손민표	엄희경	윤승환	이수연	이지호	장인권	정한숙	청우스님	하정희	황영철
경천	김경희	김성겸	김종애	대한불교	박민정	법천스님	손정은	여영스님	윤원주	이수원	이 진	장정화	정해숙	청진스님	하창원	황영철
에어테크	김광기	김성원	김주현	조계종	박병계	법해스님	손주연	여옥스님	윤은주	이수인	이진권	장총섭	정혁수	초은암	하현지	황온선
경희스님	김광래	김성준	김준영	대한불교	박상희	보경스님	손주영	박성희	윤정림	이승욱	이진영	장종현	정혜은	최경아	한국백혈	황용선
고금자	김광오	김성진	김지선	조계종	박선욱	보경스님	손재령	여취경	윤정림	이승주	이진현	장대영	정혜주	최금례	병어린이	황원진
고명선	김국현	김성진	김지예	원적정사	박선지	보관스님	손효정	연지택집	윤정희	이승찬	이진희	장혁준	정혜진	최명권	재단	황유경
고완영	김규연	김세민	김지원	대한불교	박성림	보관스님	손효진	연윤정	윤주영	이승철	이진희	장호근	정화스님	최무환	한선우	황윤자
고은지	김규민	김세희	김지현	조계종	박성미	보관스님	손희진	연주홍	윤 탁	이승환	이찬순	재오스님	정환기	최문진	한소라	황은영
고은하	김균명	김소라	김진영	장안사	박성주	보리수	송국현	영인스님	윤 태	이아영	이창실	정조스님	정희아	한영호	황정선	황은영
고재영	김근우	김소원	김창기	대한불교	박성파	본각스님	송다영	오경석	윤해진	이애영	이창희	전경숙	제아람	최병용	한유리	황정수
고재욱	김근호	김수진	김 철	조계종	박세진	불만스님	송동현	오금남	윤해진	이양희	이채원	전상복	제일조은	최병철	한윤희	효경스님
고지현	김기연	김수현	김철광	대한불교	박수연	부경스님	송보윤	故오기남	윤효영	이연희	이채은	전솔이	악국	최보운	한은숙	효광스님
고현스님	김기연	김수희	김철은	천태종	박수진	부동스님	송세진	오명옥	은정님	이영건	이춘자	전수진	조갑자	최성돈	한정훈	효성스님
공자윤	김나연	김승경	김철주	대명사	박수혁	부안리	송운스님	오미정	은종렬	이영미	이충원	전순영	조경애	최석예	한주아	효전스님
공학배	김남수	김숙자	김치선	덕업스님	박신선	삼해스님	송은호	오민희	이경미	이영미	이충진	전아정	조동삼	최선식	한주형	홍수스님
곽경현	김남숙	김순덕	김태련	도견스님	박신애	상오스님	송주의	오상은	이경민	이영실	이한희	전용화	조상현	최성욱	한지윤	희덕스님
관음정사	김남일	김순덕	김태영	도과스님	박애자	서미경	송창숙	오수희	이경순	이영아	이해원	전원용	조성만	최소영	한희찬	외다수
관정스님	김남희	김순례	김태운	도명스님	故박아임	서민정	송형준	오숙희	이경선	이영일	이향민	전은영	조소영	최수빈	한희찬	익명
관전스님	김다인	김시연	김태은	도민스님	박영은	서보열	송호우	오영선	이경원	이영주	이향미	정경윤	조수연	최수진	함봉수	
구도환	김단해	김연화	김태희	도선스님	박예은	서부원	송수근	오윤주	이경환	이영찬	이향지	정경철	조수진	최슬기	해덕스님	
구병수	김대식	김영남	김하겸	도원스님	박옥석	서연희	수현스님	오인숙	이경희	이영훈	이현복	정공스님	조승호	최승웅	해광스님	
구복식	김대진	김영려	김학준	도일스님	박완임	서영문	신경근	故오정열	이게자	이예린	이현숙	정관스님	조원복	최영범	행아스님	
구순점	김덕희	김영미	김한성	도진스님	박원예	서영진	신경민	오정화	이구슬	이오수	이현숙	정기스님	조원정	최영자	최정진	
권경순	김도연	김영미	김해옥	동명사	박위출	서유정	신경수	오지유	이금나	이용기	이현일	정길석	조윤복	최영진	허은경	
권기현	김도연	김영복	김해정	동성스님	박유진	서은지	신승인	오지은	이나현	이용식	이현주	정륜스님	조은주	최예진	허정길	
권나은	김도연	김영숙	김향숙	동진스님	박은동	서 준	신대규	오진숙	이남정	이용찬	이현주	정명재	조익준	최완우	허희경	
권대식	김도현	김영순	김현규	드림	박은애	서지원	신명숙	오치훈	이다건	이용필	이현창	정목스님	조주연	최원석	현견스님	
권도윤	김동균	김영은	김현미	네트워크	박장신	서지은	신복섭	오태진	이덕수	이용희	이형경	정미라	조현선	최유안	현근스님	
권도화	김동오	김영진	김현서	류경현	박재숙	서지혜	신석재	옥천암	이덕희	이우섭	이혜근	정미라	조현순	최유정	현담스님	
권두경	김동일	김영현	김현준	류대안	박재영	서 찬	신성숙	올파인(주)	이도권	이원찬	이호준	정미선	조현우	최은정	현문스님	
권명조	김동하	김영호	김형수	류성환	박정민	서택균	신성현	용인스님	이도현	이유금	이효정	정보옥	조혜진	최은희	현수스님	
권명희	김동현	김영화	김혜정	류승환	서희선	서희선	신소영	이동식	이동식	이유나	이희영	정석화	조희경	최익준	현수스님	
권 민	김동현	김예경	김혜정	마의자	박정이	서희주	신수연	우덕스님	이동영	이윤미	이희지	정선희	조희연	최인서	현암스님	
권법선	김두관	김용배	김혜진	만불선원	박정자	석도스님	신수진	이상권	이동욱	이윤하	인광스님	정성민	종인스님	최인영	현우스님	
권병철	김윤하	김용섭	김혜진	명수스님	박정화	선경스님	신애랑	우용석	이동은	이은미	인승순	정성애	종일스님	최인영	현재호	
권삼숙	김명숙	김용희	김홍기	명순정	박종욱	선도스님	신윤주	우점순	이동호	이은자	인준용	정성훈	종전스님	최인영	현진스님	
권선아	김명숙	김용희	김환례	명심스님	박종학	선영스님	신은정	우중훈	이동환	이은정	일진스님	정성훈	주경식	최인하	해광스님	
권성옥	김명희	김원교	김효빈	명은스님	박준자	선일스님	신은희	우태안	이동환	이은주	일청스님	정소스님	주경희	최인혜	해근스님	
권영숙	김무중	김유영	김효주	명환스님	박종희	선재스님	신정용	윤아스님	이동희	이은진	임가원	정수스님	주상봉	최인환	해능스님	
권영자	김문식	김은미	김희경	모성은	박지현	선해스님	신학녀	원공스님	이명순	이자경	임경자	정승은	주은명	최재원	해능스님	
권오관	김문진	김은영	김희동	모종은	박지훈	성광스님	신현모	원명사	이명혜	이재노	임동수	정승택	주은자	최정미	해도스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gil

동국대학교일신병원이 내디딘 새로운 발걸음, () 신관건립기금 모금은
과거 한 비구니 스님의 소박하지만, 결연한 보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골 작은 절에서 전해온 “땅 한 평이라도 보시하고 싶다”라는 그 조용한 울림은
병원의 성장이 구성원과 기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위 문장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병원이라는 곳은 언제 와도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특히 그 규모가 커질수록 마음 속 두려움도 함께 커져 대기하는 동안 그 마음을 애써 감추려 의료원보를 괜히 뒤적이지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끝까지 읽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동국대학교의료원의 전문성과 진정성을 꾸준히 담아내는 소통 창구로 자리잡길 기대합니다.

권혜★ 님

자궁내막증과 선근증에 관련한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산부인과 김도균 교수님의
수술과 진료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실력과 친절, 공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위중한 상태임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신속하게 수술 일정을 잡아주신 덕분에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술 영상 공유와 함께한 상세한 설명은
환자로서 치료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세심하게 살피주신 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추천하고 공유하고 싶어요.

이보★ 님

퀴즈의 정답, 다양한 의견, 칭찬글을
작성하여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지난호 퀴즈 정답 : 20주년
정답자 : 윤혜★

- 1 참여 내용과 이름, 전화번호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okuon@dumc.or.kr)
- 2 퀴즈 / 의견 / 칭찬 중 택 1 참여 가능합니다.
- 3 퀴즈 정답 및 선정된 내용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대표자 :)	☐ 익명요청 (모든 홍보물에 익명으로 표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본 의료원과의 관계 (※ 중복 체크 가능)	☐ 불교계 (☐ 스님 ☐ 불자) ☐ 일반 (☐ 환자 ☐ 보호자) ☐ 교직원 ☐ 동문 ☐ 기타 ()	
직장명	부서	직위
우편물 수령주소	☐ 자택 ☐ 사찰 ☐ 직장	
휴대폰번호 010 —	유선전화	

약정

약정액	현금	원 (₩)		) □ 현물기부(		원)상당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월()원씩 / 총()회
기부금 용도	□ 의료원(병원·대학) 발전기금			□ 지정기금 (			지정)
	□ 병원발전기금 (□ 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	□ 경주병원	□ 부당한방병원)		

남부방법

본인 자동이체 신청	월정기납 : 매월() 일					예금주 :	이체은행 :
본인 자동이체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입금방법 (☐ 일시납 ☐ 분납)		입금자명 :				
	☐ 동 국 대 학 교 일 산 병 원		▶ 국민은행 778037-00-000011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동국대학교일산병원(증축기금)		▶ 국민은행 778037-00-000347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동 국 대 학 교 일 산 한 방 병 원		▶ 국민은행 778001-00-059986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한의원		▶ 우리은행 1005-202-076965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 동 국 대 학 교 분 당 한 방 병 원		▶ 국민은행 368137-01-001162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자동이체(CMS)	출금일 : 매월()		☐ 1일	☐ 18일	☐ 25일	(총	원)
	예금주 :		☐ 기부자와 같음		은행명 :	계좌번호 :	
급여공제	사번 :		(※ 재직 교직원에 한함)				

정보동의

- ☐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수집목적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보유기간 : 5년)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 자동이체 동의여부 통지 안내 : 효성에프엠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 ☐ 후원자는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상기와 같이(효성에프엠에스㈜), 국제청(기부금 세제혜택 근거자료)동의합니다.
-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인 : 서명(인)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귀하

- 동국대학교의료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나눔의 기쁨과 더불어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정서 송부 : 주소 ▶ 10326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 이메일 ▶ hongbo@dumc.or.kr / 팩스 ▶ 031·961·9239
- 문 의 : 동국대학교병원 대외협력홍보팀 발전기금 담당 031·961·9000

보내는 분

주소

연락처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24. 9. 1. ~ 2026. 8. 31.

고양일산우체국
제269호

gil

good in life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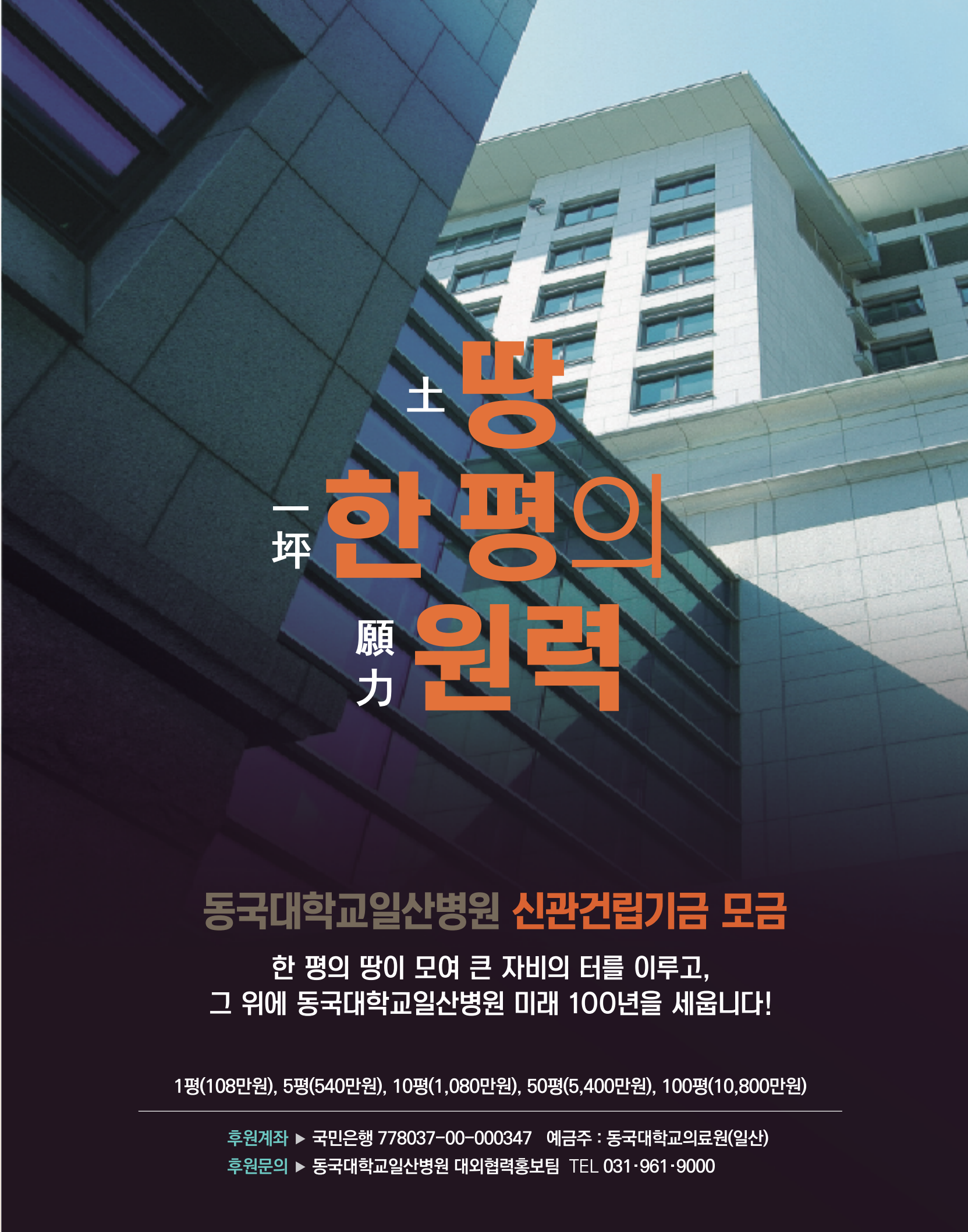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음이 다치고, 몸이 아파도 사는 게 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일상이 늘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힘겹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희청일 때 손을 내밀어주고 기대고 싶을 때 어깨를 내주고
지친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동국대학교병원의 마음이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곳에 풀칠하세요.

정혜선



土 坪

一 坪

願 力

한 평의
원력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관건립기금 모금**

한 평의 땅이 모여 큰 자비의 터를 이루고,
그 위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미래 100년을 세웁니다!

1평(108만원), 5평(540만원), 10평(1,080만원), 50평(5,400만원), 100평(10,800만원)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037-00-000347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후원문의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대외협력홍보팀 TEL 031·961·9000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생명존중과 자비의료실천으로
부처님 법 전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